전북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정읍'

道, 최우수 선정…5년 연속 1위
기업 친화성·애로 해소 등 호평
기관 표창·재정 인센티브 받아

정읍시와 JB금융그룹이 지난해 12월 통합연수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내장산리조트 관광단지 내 건축부지에서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전기안전공사 연수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들어서게 될 정읍시가 전북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전북도의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최우수기관으로 정읍시가 선정됐다.

정읍시는 다양한 신규 시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고충과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했다.

정읍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전북도 기관 표창과 함께 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는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등 16개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했다.

무엇보다 정읍시는 기업애로 해소 전담 창구 설치와 현장기동반 운영, 지역 내 기업 동향 파악,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실적에서 전북지역 최고 득점을 받았다.

정읍시는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업체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제공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이자보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및 낙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 맵과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가 잘 이뤄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미래성장동력 3조원대 128개 사업 발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2022년 89건·2023년 39건
갯벌유산센터 등 국비 확보 총력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삼양염업사 염전.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총사업비 3조원대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계문화유산도시의 강점을 살리고 청정한 자연환경·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특화시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다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고창군은 지난 22일 유기상 군수 주재로 '2022~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 예산 지원을 토대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2022년 89건 3839억원, 2023년 39건 2조9737억원 등 총 128건 3조3576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확정했다.

특히 '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사업'(315억원)이 주목된다.

고창군은 오는 7월 유력시되는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이뤄지면 이후 갯벌 연구와 생태보전을 위해 '세계유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과 고창·부안해상풍력 배후도시에 따른 물류량 급증, 고창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 건설 등의 국고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러한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반영 및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또 '한국형 그린 뉴딜' 대응사업으로 '녹색도시경관 조성 지중화사업(120억원)'과 고창군 핵심 시책사업인 '농생명식품산업', '역사문화관광수도 전략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포함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창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 군수는 "메가프로젝트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최대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며 "발표된 대단위 핵심 프로젝트가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전북도, 14개 시·군과 관광마케팅 공동 추진

관광협의체 구성…관광지 56곳 발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을 위한 전북관광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관광협의체는 도내 관광지 56곳을 발굴하고 전북 여행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영상콘텐츠는 시·군을 대표하는 14편과 종합편 1편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된다.

또 팔로워 3만명 이상 인터넷 영향력자(인플루언서) 28명을 초청해 관광지를 소개하고 포스팅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광마케팅 협력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수요에 대응해 편안한 여행을 즐기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문화·여가·육아용품 무료 대여점 개장

남원시가 지난 22일 문화·여가·육아용품을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 대여점'을 개장했다. 〈사진〉

공구 대여점은 남원 옛 부채박물관 1층에 마련됐으며 60여 세트의 예초기, 카시트 등을 갖췄다.

월~금요일에 문을 열며, 남원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다.

다만 3개월여 후에는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품목과 수량을 늘려 시민 부담을 줄여주고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268억원 들여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내년 완공…악취 잡고 예산 절감

익산시는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통해 예산 절감과 악취개선 효과 창출에 집중한다고 23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를 설득해 추가 국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188억원과 도비 40억원 등 총 268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1일 68t에서 57t으로 11t이 감소해 연간 5억원 정도의 위탁처리비 절감이 예상된다.

또 감량화 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량 판매해 연간 7억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각종 시설 개선으로 악취를 방지해 인근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에 이바지하게 된다.

앞서 익산시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방식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해 지방교부세 112억원이 삭감될 상황이었으나 중앙부처를 설득, 사업 방식을 변경하며 신규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절감과 악취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 생활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스마트폰 신고 심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매긴다

군산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한 심야 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까지 과도하게 과태료가 부과돼 시민 불만을 사고, 행정력도 낭비되기 때문이라고 군산시는 설명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심야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또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건수도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한 조처"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